

시간은 금이다.

사실 이는 거짓이다. 시간은 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.

따라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사는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것이다.

현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존재한다.

사용해본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필수 서비스만을 엄선하여 소개한다.

Overleaf (<https://www.overleaf.com/>)

Latex 작업 환경 세팅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 줌과 동시에 동료들과 협업하여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. 1년에 약 10만원을 내면 협업하는 동료의 수를 무한대로 할 수 있다. 무료 버전은 1명만 협업이 가능하다.

Dropbox (<https://www.dropbox.com/>)

동료들과 동기화된 파일과 폴더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. 이와 더불어 하드 포맷 시 매우 편하다. 왜냐하면 백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

Google Drive (<https://www.google.com/drive/>)

Google Drive는 혁명적 기술이다. ppt 그리고 word를 온라인에서 동료들과 협업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. 더 혁명적인 것은 무료라는 점이다.

Google Colab (<https://colab.research.google.com/>)

딥러닝을 위해 Tensorflow를 깔다가 화가 난 분들은 Colab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클라우드 상의 컴퓨터 상에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하다.